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47호 / 08월 8일

베이징市,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에 동참

1. 개요

- 서울, 상하이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들 간에 홍콩, 싱가포르를 잇는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, 최근에는 베이징市도 국제금융중심지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음.
- 지난 7월 베이징 소재 권위있는 연구소 중 하나인 北京特華財經研究所(소장 李光榮)는 『수도(首都)의 금융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보고』¹⁾를 발표, 베이징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베이징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전체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.
- 현재 베이징시는 동 보고서가 국제금융중심지 건설을 위해 제기한 정책·시장·혁신·인재 등 4개 부문의 정책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.
- 이같은 베이징시의 움직임은 최근 맥킨지 서울사무소가 아태지역 금융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맞물려, 금융허브 건설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임.
-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, 아태지역 금융 CEO들이 선호하는 금융중심지로서 베이징은 서울보다도 오히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.

1) 北京特華財經研究所. 2003. 『首都金融業發展戰略研究報告』. 동 연구는 관련 전문가와 박사후 과정에 있는 학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6개월 동안 계량분석모델을 기초로 비교·분석·평가한 후 베이징시 금융·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것임.

2. 국제금융중심지 건설의 당위성

- 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늦어도 2006년까지는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바, 베이징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유리함.
- 특히 베이징은 수도가 지닌 잇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음.
- 영국 런던, 프랑스 파리, 일본 도쿄 등 40여개의 국제적인 금융센터 대부분이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,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이후에 국제적인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도 베이징의 국제금융중심지 건설은 절실히 필요함.
- 수도 북경이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할 경우, 대규모 자본결집 및 자본확대 기능을 충족시킴으로써 원활한 자금 유통과 자본 운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음.
- 또한, 금융중심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발전 및 대규모 상권(商圈) 형성이 실현될 것이며, 이에 따른 고용창출 확대 및 재정수입 증대가 예상됨.
- 이를 통해 경제·금융 부문의 세계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분업에 중국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중국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.

3. 베이징의 비교우위와 향후 전략

- 베이징은 편리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비, 정치·경제·금융 관련 각종 정보의 집중,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에 따른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등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우수한 요건²⁾을 갖춘.

2)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중심도시의 요건으로는, 첫째, 양호한 지리적 위치, 폭넓은 서비스 공간, 적합한 시간대 등 자연 조건, 둘째, 안정된 환경, 셋째, 완비된 금융시스템, 넷째, 금융중심도시 또

- 베이징은 양호한 정치·경제·사회적 환경하에 고도성장을 실현해 왔으며, 성장 잠재력이 큰 환발해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경제권(大北京)을 형성하고 있음.
- o '9.5계획'(1996-2000년)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10%, GDP 1조 元 이상을 기록하였으며, 2001년도 1인당 GDP 3,084 달러를 실현함.
- 건전한 금융조직과 시장체제 및 발전된 금융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완비된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, 통화·은행·보험·증권·채권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함.
- o 2002년도 금융산업생산액(485억 元, GDP 대비 15.5%) 증가율 전국 1위 차지
- o 2002년말 현재 베이징시 인민폐 예금잔액은 1조 5,393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5.8% 증가, 대출잔액은 9,231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3.0% 증가
- o 2002년말 현재, 베이징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채와 정책성 금융채권 2조 8,000억 元, 동 시장내에서 재정부 발행 국채규모 2,786억 元, 2002년 한해 동안 은행간 채권시장 거래규모 10조 元 등 전국 제1의 채권시장을 보유하고 동시에 장외채권시장의 발전이 두드러짐.
- o 2002년말 현재, 베이징 소재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기록한 보험료 수입은 232억 9,900만 元(누계기준)을 기록, 전국 총액의 7.6%를 차지
- o 2002년 현재 67개 상장사가 베이징에 등록되어 있는데, 그 중 29개 상장사가 베이징시 소속이고 나머지 38개는 국유 상장회사임.
- 中關村 과학기술단지 확장건설, 베이징올림픽 및 다수의 인프라 건설계획 등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투자수요 및 투자기회를 제공함.
- o 2008년 올림픽과 관련하여 향후 6년간 투자총액은 3,200억 元(2002년 기준)이며, 그 중 베이징시가 관장할 부문은 1,800억 元 규모로 매년 적어도 300억 元을 올림픽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임.
- o 향후 10년 동안 中關村과학기술단지 건설 및 다수의 과학기술기업 성장에 따른 대규모 자금수요가 예상되는바, 현재 베이징시의 중소과학기술기업에 대한

는 주변지역에서의 고도성장에 수반한 풍부한 투자기회와 자금수요 등임.

자금 지원 부족액이 매년 200억 元에 달함.

- 금융중심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고급두뇌와 금융전문가 등 인력자원의 확보인바, 베이징은 중국과학원 및 사회과학원의 원사(院士, 학술원 회원에 상당)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.
 - 중국당국이 발표한 「중국도시경쟁력 보고서」에 의하면, 베이징은 인적(人的)자원 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융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.
 - 중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이 베이징에 소재해 있고, 중국 전체 컴퓨터S/W 고급인력의 1/3과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고급인력의 약 1/2이 집중되어 있으며, 전자정보학과가 6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음.
 - 은행 내부 및 은행간 자금결제 등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은행의 자금결제 대부분 베이징에서 이루어짐.
 - 중국 전체 은행자금의 약 80%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은행 및 대다수 주식제 상업은행의 본사가 베이징에 소재하고 있으며, 중국인민은행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한 은행간 자금결제도 모두 베이징에서 이루어짐.
 - 中國國債登記結算中心和 中國證券期貨登記結算中心도 베이징에 소재함.
- 중국내 상당수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구체적인 조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국제수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나, 상술한 비교우위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명확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경우 국제금융중심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.
- 현재 베이징은 영국 런던, 프랑스 파리, 한국 서울 등과 같이 수도(首都)경제권내 도시 → 현대화 된 도시 → 아시아지역 중심도시 → 국제대도시 등의 순차적인 성장전략하에 우선은 태평양 서안의 주요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임.
 -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北京特華財經研究所 보고서는 금융산업 발전에 필수적

인 정보, 과학기술, 고급두뇌, 자금 등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·발전
이 시급함을 베이징시 당국에 강력히 건의함.(***)

<표-1>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도시들의 장단점 비교

순위	도시명	장 점	단 점
1순위	홍 콩	▪ 개방된 시장 ▪ 영어 사용 ▪ 낮은 세율 ▪ 자유로운 국내 시장	▪ 북부 아시아시장과 멀리 떨어진 거리 ▪ 환경 오염 심각
	싱가포르	▪ 개방된 시장 및 문화 ▪ 영어 사용 ▪ 낮은 세율 및 주식 배당 소득의 비과세 ▪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	▪ 동북아지역과 멀리 떨어진 거리 ▪ 소규모 내수시장
2순위	도 요	▪ 완벽한 서비스체제 구축 ▪ 국제적인 대도시	▪ 높은 물가 ▪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▪ 성장잠재력 부족
	상하이	▪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장강 삼각주의 중심지 ▪ 국제적인 주요 금융기관 소재 ▪ 상해 국제박람회(2010) 유치 ▪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사용료 ▪ 주식 배당 소득의 비과세 ▪ 영어 구사력의 급속한 향상	▪ 환경 오염 심각 ▪ 중국내에서 상대적으로 高물가지역 ▪ 지방보호조치
3순위	서 울	▪ 큰 경제규모 ▪ 빠른 경제 회복력 ▪ 시장개방을 위한 정부 노력 ▪ 우수한 통신 및 교통기반 시설 ▪ 낮은 이자율 ▪ 우수한 노동력 ▪ 고학력의 인적 자원	▪ 시장의 투명성 결여 ▪ 취약한 자본시장 ▪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▪ 지나친 금융규제 및 높은 조세부담 ▪ 외국 금융기관의 절대 부족 ▪ 소액주주 권리 취약 ▪ 영어구사 능력 부족
	베이징	▪ 정치·경제·금융 정보집중, 교통·통신인프라 구비 ▪ 베이징올림픽(2008), 과학기술단지 건설 등에 따른 풍부한 자금수요 및 투자기회 ▪ 환발해경제권, 광역수도경제권 등 성장잠재력 ▪ 금융시장의 빠른 성장 ▪ 중국인민은행 소재 ▪ 풍부한 고급인력 자원 ▪ 주식 배당 소득의 비과세	▪ 초보적인 금융서비스시스템 ▪ 주변지역 경제에 대한 견인역할 미약 ▪ 영어구사 능력 부족 ▪ 환경 오염 및 위생 문제 ▪ 법·제도 미비 ▪ 지방보호조치

주 : 순위는 2003년도 맥킨지의 「아·태 금융기관 CEO 설문조사 결과」에 의거.